

2025학년도 1학기 문헌연구보고서



[챗 GPT 시대, 대학 과제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이름	이소후
전공	인공지능학부
학번	20252401

목 차

- I. 서론
- II. 챗GPT 실제 교육적 활용 사례 분석
 - 1. 챗GPT 활용의 긍정적 측면 분석
 - 2. 챗GPT 활용의 문제점 및 부작용 분석
 - 3. 챗GPT 문제에 따른 대학교 과제 변화의 필요성
- III. 대안적 과제 설계 방향 제시
 - 1. 챗GPT 활용 계획안 제출 의무화
 - 2. 교수-대학생 간 과제 첨삭 활동 의무화
 - 3. 과정 중심 평가 방식 체계화
- IV. 결론

I. 서론

오늘날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촉발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그 중요성과 대체 불가능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챗GPT 등장 후 사용현황을 보면 2023년 6월을 기준으로 전체 사용자 수가 약 17억 명에 이르러 전체 인구의 63.4%가 챗GPT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사용자 비율이 64.53%에 달한다는 것이다.¹⁾ 챗GPT는 이와 같이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고, 방대한 데이터를 사전 학습하여, 언어 이해와 생성 능력을 토대로 논리적인 답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챗GPT의 기술적 진보는 단순한 정보 검색을 넘어, 대학 교육 현장에서도 새로운 학습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과거 대학교의 과제 수행이 학생 개개인의 자료 수집, 분석 능력과 창의적 탐구력에 기초했다면, 오늘날 챗GPT는 방대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요약, 정리해주고, 복잡한 개념을 쉽게 풀이해주는 등 대학생들에게 강력한 지식 보완 도구로 활용된다. 이처럼 챗GPT는 대학생 개개인의 배경지식 한계를 보완해주며, 지식 제공 차원에서 그 유용성이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교육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챗GPT의 무분별하거나 과도한 의존은 대학 과제의 본질적 가치와 학문적 정직성을 위협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챗GPT가 생성한 결과물은 짧은 시간 내에 높은 완성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이 과제의 핵심 과정을 스스로 수행하지 않고 인공지능한테 ‘위임’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학생들이 챗GPT에게 과제 작성을 맡기고 자신의 글인 것처럼 제출하는 ‘AI 표절(Algiarism)’이 일어날 경우, 이를 정확히 탐지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AI표절’은 과제를 통한 교육의 효과를 무화하여 학습자의 성장 계기를 차단하고 평가의 왜곡을 초래하며, 글쓰기 수행을 통한 문식성의 발달을 저해한다.²⁾ 이로 인해

1) 이명숙(2023), 「ChatGPT에 관한 대학생 이용자의 이용인식 및 경험에 관한 연구」, 『동아인문학』 vol65, 동아인문학회, 2-3쪽.

2) 이윤빈(2023), 「대학생 필자의 글쓰기 과정에서 챗GPT에 대한 질문 양상 연구-쓰기 수준별 필자 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vol.17, 한국교양교육학회, 36쪽

과제물 수행이 단순한 복사, 붙여넣기 형태로 변질되고, 학생 고유의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의 기회가 상실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교육계에서 챗GPT 도입이 학습자의 과제 수행에 미친 변화와 함께 이러한 변화가 학습 성과 및 교육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비판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또한, 단순히 챗GPT의 부정적인 측면 이외에도 긍정적인 측면 또한 함께 분석하여 편향되지 않은 분석 결론을 도출해 낼 것이다. 이렇게 도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챗GPT 문제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교육현장인 ‘대학교’에서의 과제 설계 변화의 필요성을 파악하여,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단순히 금지하거나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과제의 본질적 목적과 교육적 목표를 재조명하면서 이를 반영한 과제 설계의 새로운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II. 챗GPT 실제 교육적 활용 사례 분석

1. 챗GPT 활용의 긍정적 측면 분석

현재 챗GPT는 교육 맥락에서의 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는 등의 긍정적 검토와 함께 이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모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학습자가 지닌 이해 수준에 따른 튜터링(tutoring)을 제공하여 개인화된 적응형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홍수민&한형종,2023). 이는 곧 교육학계가 챗GPT의 지식 보완 도구로서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바라봄으로써 학생들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시도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은 단순한 연산이나 과학적 정보제공을 넘어서 글쓰기와 같은 창작활동에까지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챗GPT를 활용하여 대학생들에게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였을 때, 대학생의 쓰기 효능감 변화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 챗GPT의 결과물을 참조함으로써 자기의 경험을 좀 더 떠올려 체계화, 구체화하고 단락 구성에 대한 지식을 적용하여 글쓰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이론으로만 학습한 개요, 단락 구성에 대한 지식을 챗GPT를 활용하여 글쓰기로 수행하면서 글쓰기에 더욱 수월하게 접근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챗GPT를 활용한 성찰적 글쓰기 수업은 학습자의 쓰기 효능감에 인지적, 정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확인할 수 있다(강정구,표시연,2024). 즉, 챗GPT는 과학 분야, 수학 분야, 인문 분야 등 다양한 학문에서 효과적인 활용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챗GPT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 AI에 대한 인식이 나뉘는데, 그중에서도 애리조나주는 생성형 AI와 관련해 비교적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애리조나주립대학은 오픈AI와 최초로 파트너십을 맺은 대학으로, 대학 현장에 AI 기술을 직접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연구진은 애리조나주립대학은 생성형 AI만의 특징을 활용해 교수자와 학생들의 교수학습 활동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³⁾

또한, 다른 국가들도 교육 현장에 AI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스마트 네이션” 전략 아래 AI 기반 개인 맞춤 교육으로 학습 효과를 높여 2030년까지 교육 분야의 AI 선도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핀란드는 국가 교육과정에 AI를 통합하면서 윤리와 형평성을 최우선 원칙으

3) 구체적으로 애리조나주립대는 지난해 3월 ‘AI Innovation Challenge’를 발표하고 교수진과 직원들에게 챗GPT를 활용한 업무 혁신 방안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연구진은 “대학이 일방적인 방법이 아닌, 구성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얻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업무의 혁신 방향을 이끌어 내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애리조나주립대는 자체 AI 플랫폼 제작을 위한 팀을 구성해 AI 확산에 나서고 있다. 일부 교수는 수업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활용 중이며,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튜터 챗봇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소현(2025.04.10.), 「美대학,교육에 생성형 AI 접목...」챗GPT 긍정적 측면 활용」,<<한국대학신문>>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77491> (접속일:2025.6.13.).

로 삼고 있다. 미국 스탠퍼드대의 한 실험에서는 인간 교사가 AI 조연 프로그램을 함께 활용해서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수학 성취도가 소폭 향상되는 결과가 나오며 AI보조교사가 학습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가능성을 보여줬다.⁴⁾ 이처럼 다양한 나라에서 생성형 AI의 교육적 효과를 입증하고, 실제로 현장에 도입하여 학습 효과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교육환경에서 챗GPT를 활용함으로써, 개개인을 학습에 적응시킬 수 있고, 결과물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효율성과 창작 능력을 증진시켜주며 심지어 양적 연구를 통해 실제로 주요 과목의 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챗GPT라는 생성형 AI를 바라본다면 교육환경에 빠른 시일 내에 챗GPT를 도입하여 학생들의 교육 시스템의 학습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낼 수도 있을 것이다.

2. 챗GPT 활용의 문제점 및 부작용 분석

그러나 챗GPT의 활용에는 긍정적인 측면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챗GPT의 도입은 그 자체만으로 교육의 질을 담보하지 않으며, 무분별한 의존은 결국 위에 기술한 장점 이면의, 학습 주제성의 약화와 윤리성에 연관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생성형 AI는 교육적 도구로서 많은 가능성과 효과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그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교수자들은 생성형 AI 활용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몰입도와 참여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했지만, 이러한 효과가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AI의 오류 가능성과 일관성 없는 피드백 등은 교육적 활용에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소이다. 이러한 일관성 없는 답변이 사용자들에게 혼란을 주며, 결과적으로 학습 동기 저하, 학습의 본질적인 목표인 문제 해결력과 학습 주제성 등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전신영&조명희, 2024). 이러한 문제점들은 교육 시스템의 학습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챗GPT 도입의 시초에 있어서 모순된다는 사실이 그 심각성을 대두시킬 것이다.

그 심각성의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챗GPT의 사용을 꺼리는 사용자가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심지어 교육계에서는 아직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를 정상적인 학습을 방해하는 ‘컨닝 도구’ 취급을 하기도 한다. 미국 뉴욕시 교육부는 2023년 1월 초 모든 공립고에 챗GPT 접속을 차단해 사용을 금지했고, 시애틀 일부 공립고에서도 챗GPT 사용이 금지됐다. 영국의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 등 전 세계 대학들이 같은 문제로 ‘챗GPT 금지령’에 동참하고 있다고 한다.⁵⁾ 앞에서 설명한 애리조나주립대학은 오히려 이 상황에서 ‘챗GPT 기술을 잘 활용하면 교육과 연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일부 소수의 입장에 속하는 것이었다.

한편, “표절 문제” 또한 챗GPT의 주요 문제점이다. 챗GPT는 논문도 생성해낼 뿐 아니라 예술성과 창의성을 요하는 소설, 시까지도 성공적으로 생성해낸다. 기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텍스트를 생성해내는데 무엇을 참고하였는지 레퍼런스를 해주지 않는 특성으로 챗GPT 자체의 표절 문제도 있지만, 챗GPT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페이퍼를 자동으로 작성해내서 내는 표절의 문제도 학교 현장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한다. 사회의 각종 분야에서 챗GPT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스터디, 테스트하는 분위기와 대비하여 학교 현장에서는 챗GPT가 “해결 대상”으로 인식된다는 의미이다. 인공지능 기술이 학교에서 “문제”로 여겨진다는 점은 인공지능을 교육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교육 종사자들이 대비가 되어있지 않음을 의미하고, 이는 또한 최근 수년

4)송유진(2025.05.23.), 「[AI 교육 해외 동향] 챗GPT와 공부하는 아이들, 달라지는 학습 풍경」, <<edumorning>> <https://edumorning.com/articles/587> (접속일:2025.06.14.)

5)류재민(2024.01.19.), 「[뉴욕은 학교 ‘AI 금지령’ 내리는데...美애리조나대 “챗GPT 전면 활용”]」,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4/01/19/OELW4NRPRRDYPAPKWL4YEOHQ5Q/ (접속일:2025.06.14.).

에 빠른 속도로 만들어져 실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인공지능 시대 교육 정책의 방향과 내용이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의미한다(권정민&이영선,2023).

결론적으로,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는 교육적 도구로서 다양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만 여러 한계와 부작용도 존재한다. 즉, AI의 도입만으로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으며, 지나친 의존은 학습 주체성 약화, 윤리성 문제, 문제 해결력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대학교 교육 현장에서 챗GPT의 오류 가능성과 표절 문제 등으로 오히려 챗GPT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챗GPT의 초기 도입 취지와 모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3. 챗GPT 문제에 따른 대학교 과제 변화의 필요성

특히, 논문이나 과제 등 개개인의 창의성과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창작물이 많은 대학교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더 주의깊게 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 무엇보다 생성형 AI 중 챗GPT의 경우, 13세 이하의 사용할 수 없고, 18세 이하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사용 연령을 고려해보면 이러한 이슈는 “대학 교육현장”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생성형 AI 사용자들의 과제 활용 경험을 확인한 결과 약 60% 학생들이 과제수행, 그 중에서도 ‘과제의 초안 작성’에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한샘&유지원, 2024).

이렇듯 대학교에서의 챗GPT 사용의 일상화에 따라, 대학교 과제는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 이유로는 대학생들 사이에서 학습 보조 도구를 넘어 과제를 챗GPT한테 의존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한 대학 산업디자인과 A 교수는 “요즘엔 필기하는 학생을 본 적이 없다”라며 “다 휴대전화로 ‘찰칵, 찰칵’하며 PPT와 칠판을 찍어간다. 그걸 챗GPT에 정리해달라 하면 필기 노트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표용 PPT도 챗GPT가 대신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아지고, ‘코드 짜기’ 시험이 끝난 뒤에는 “앞자리 학생이 AI를 쓴 것 같다”는 신고가 1~2건 접수된다고 한다. 그러나 교수들도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는 분위기다. A 교수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AI를 어떻게 잡아낼지 고민했지만 이제는 ‘어차피 쓴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일부 대학은 AI 활용을 표절로 간주하고 탐지 프로그램을 도입했지만 AI 발전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평가이다.⁶⁾

따라서, 챗GPT 도입 이후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과제 설계 방향을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것은 이젠 필수적이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AI를 떼어놓기 힘든 시대가 닥친 만큼, 단순히 앞에 언급한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처럼 ‘챗GPT 금지령’을 선포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챗GPT는 질문에 빠르고 쉬운 답을 제공할 수 있지만 학업 및 인생에 필수적인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만들어주지 못해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미국 뉴욕주 교육부가 금지령을 내렸을 때에도 금지령의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금지령이 ‘학교 밖’에서의 접속, 사용까지 완전히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⁷⁾ 그렇기에 대학에서 챗GPT를 전적으로 배제하기보다 챗GPT의 발전에 맞추어 대학생들의 AI 사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더불어 과제 설계에 적극적인 변화를

6)김성하(2025.04.21.), 「‘찰칵’하고 복붙하면 A+...대학생 챗GPT 사용 이젠 ‘일상’」, <<여성경제신문>>, <https://www.woman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380> (접속일:2025.06.14.)

7) 일부 학교들은 금지 조치를 폐지하고 나섰다. 그중 하나인 워싱턴주 소재 왈라왈라고등학교의 사회 교사 야즈민 바헤나는 “우리 아이들은 AI 사용이 표준이 된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라며 “그렇기에 (학교에서) 사용법을 익혀야 한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토비 월시 뉴사우스웨일스대 AI 연구소 수석과학자도 “우리가 계산기를 (교육 현장에) 받아들인 것처럼 AI를 수용할 방법도 찾아야 한다”고 했다. AI 확산 자체를 막을 수 없다면, 학교가 사용을 금지할 게 아니라 올바르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얘기다.

이서희(2024.01.19.), 「“챗GPT 허용” 미국 대학 등장...교육계, ‘AI금지’대신 ‘공존’ 가나」,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1909580001085> (접속일:2025.06.14.)

주어야 할 시기이다. 대학에서는 챗GPT가 대학생 학습자들에게 주는 긍정적인 측면을 편파적으로 왜곡하지 않음과 동시에 챗GPT가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대안책을 과제에 녹여내야 한다.

Ⅲ. 대안적 과제 설계 변화의 방향성 제시

1. 챗GPT 활용 계획안 제출 의무화

어떠한 방식으로 챗GPT를 과제 작성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과제 수행 전 계획안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학생 개인에게 요구함으로써, AI 도구 사용의 과정을 투명하게 명시하고 표절이나 무분별한 챗GPT 의존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단순히 답변을 복사하여 붙여넣는 행위가 아니라 챗GPT의 주된 사용 목적, 사용 범위 등을 주체적으로 대학생이 결정하도록 하는 과정은 학생에게 AI를 활용하는 주체 인식을 부여하여 챗GPT의 능동적 설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들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학생이 챗GPT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부분들을 교수자가 파악 가능하므로 챗GPT 활용에 관한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합의’⁸⁾가 이루어질 수 있고, 더 나아가 개개인의 세부적인 역량에 대한 차별화된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A대학생, B대학생 모두 ‘기후변화’에 대한 주제의 과제를 부여받았을 경우, A대학생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 협약은 무엇이 있는지와 그 협약들의 역사적 순서에 대해 관련된 내용을 요약받겠다. 또한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하되 과제의 구체적 분석은 직접 조사하여 작성할 것이며 정확한 출처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활용 계획안에 작성하였고, B대학생은 ‘기후변화에 대한 정의와 문제점을 요약받은 후 요약, 정리할 예정이다.’라고 작성하여 제출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교수의 입장에서 A대학생은 어느 관점에서 주제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고 챗GPT의 한계를 어떻게 보완하려고 노력하는지를 알 수 있어 해당 학생의 AI 도구 활용 능력이나 주체성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리게 된다. 반면에 B대학생에 대해서는 너무 포괄적이고 구체성이 부족한 계획안을 제출하였다고 판단하여, 단순히 챗GPT의 편의성에만 의존하는 학생이라는 낮은 평가를 내리게 될 것이다.

2. 교수-대학생 간 과제 첨삭 활동 의무화

교수는 학생과의 첨삭 활동을 진행하면서 학생이 챗GPT 등의 AI도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다층적인 관점에서 진단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교수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AI의 한계를 보완하거나 단순한 AI 과의존에서 벗어난 AI윤리적인 창작 활동을 유도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지금 제시하는 ‘교수-대학생 간 과제 첨삭 활동’은 단순히 교수가 학생의 과제 결과물만을 보고 교수자 관점에서 ‘수정 사항’을 점검하여 일방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즉, 학생이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부분에서 어떤 챗GPT 내용을 활용하였는지 등을 분석하여, 그 과정에 관한 첨삭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글쓰기와 같은 현재 대학 과제는 단순히 완성된 과제물을 도출하는 것보다는 쓰기 과정을 통해 대학생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신장시

8) ‘창안’질문 사용에 대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합의가 매우 구체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챗GPT에게 원고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작성을 맡길 수 없다.’와 같은 광범위한 윤리 지침만으로는 이 연구의 내용 생성하기 과정에서 관찰된 필자K의 사례(창안 질문을 한 뒤에 챗GPT가 제공한 답변 중 하나를 자신의 글에 표현만 일부 수정하여 사용했음에도 그 행위가 쓰기 윤리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와 같이 ‘비윤리적 창안’의 범위에 대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표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윤빈(2023), 「대학생 필자의 글쓰기 과정에서 챗GPT에 대한 질문 양상 연구-쓰기 수준별 필자 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vol.17, 한국교양교육학회, 45-50쪽.

키는 것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이러한 대학 과제 목적에 따라 일부 대학에서는 윤리강령을 제정하거나 윤리 서약을 통해 챗GPT 과의존 문제에 임시적 방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⁹⁾ 그러나 이런 임시 방편책은 장기적으로 바라볼 때, AI활용에 대한 대학생들의 기초적인 생각을 바꾸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학교 내에서는 올바른 챗GPT 사용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학교 밖에서 과제를 수행할 때에는 결국 윤리적이지 못한 사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과제 결과만을 평가하는 첨삭보다는 ‘단계별 과정 지도’의 필요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여기서 ‘단계별 과정 지도’란 ‘계획하기-집필하기(초고 완성)-고쳐쓰기’의 단계로¹⁰⁾ 학생이 첨삭을 위해 제출한 과제 내용에 대해서 보다 더 세부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대학에서는 각 과제마다 교수-대학생 간 첨삭 활동을 추가하여 학생들에게 단계별 과정 지도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3.과정 중심 평가 방식 체계화

챗GPT가 대학 과제 수행에 보편적으로 활용되면서 대학생들은 완성된 결과물만 빠르게 제출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결과 중심 평가 구조’에서는 교수 또한 과제의 사고나 과정보다는 최종적인 결과에만 집중하게 되며, 학생들은 AI 생성물의 단순 복제에 그치는 학습에 머무르기 쉽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세 번째 대안은 과제 중심 평가는 지양하고, 과정 중심 평가 방식이 반영된 복합적 평가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 근거로는 첫 번째, 과정 중심 평가 방식은 학생이 과제를 수행하는 사고 흐름과 전략, 문제 해결 과정 전반을 교수자에게 평가받는 구조를 형성한다. 결과만 달랑 제출하는 과제에 비해, 챗GPT 활용 의존도, 챗GPT 활용 후 개인의 재구성이 들어갔는지 등의 요소들이 평가 기준에 포함됨으로써 학생은 AI를 단순 도구로만 여기지 않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대학 글쓰기 수업에서 생성형 AI에 대한 비판적 사용 즉, 챗GPT가 제공한 초안을 단순히 복제하지 않고 자신의 아이디어와 비교하며 재작성하도록 유도하는 구조가 학생들의 글쓰기 수준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 또한 챗GPT 사용 결과를 비판적 질문과 함께 토의하게 하자, 학생들이 AI 생성 결과를 스스로 점검하고 보완하려는 인식 변화를 보였다(이윤빈,2024).

두 번째로 대학은 중등 교육과 비교했을 때 과정 중심 평가를 적용하기에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대학 교육의 목표는 단순한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학습 목표와 평가 기준을 독립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교수자는 기존의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과정 중심 및 성장 중심 평가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로써 대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성과를 돌아보고 개선하려는 태도를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다.¹¹⁾

따라서 챗GPT 활용 과제를 단순 결과 중심에서 변화시킴으로써 학생의 사고 방식을 그대로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챗GPT에 대한 무비판적 의존에서 벗어나 주체적 사고에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결국 ‘과정 중심 평가 방식의 지향’은 단순한 평가 기준 변화가 아니라, 대학생이 스스로 사고하고 학습을 설계하며, AI를 전략적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환점이다.

9) 정제영(2023.04.20.), 「[ET시론]챗GPT와 관련된 교육의 이슈들을 해결하자」,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20230420000183> (접속일:2025.06.14.)

10) 권정현(2020), 「대학 글쓰기 교과를 위한 온라인 첨삭 프로그램 운영 조건과 개선 방안-한성대학교 온라인 첨삭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고와표현』 vol.13, 한국사고와표현학회, 36-37쪽.

11)이금란(2024.11.18.), 「[이금란 칼럼] 교수자들이 놓치고 있는 수업설계⑤ 평가」, <<교육플러스>>,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14> (접속일:2025.06.14.)

IV. 결론

본 보고서에서는 대학 과제 수행에 있어서 사용되는 챗GPT에 대해 부정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가장 우려되는 챗GPT 활용 문제는 학습자의 사고 과정이 AI에 의존함으로써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특히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력, 주체적 학습태도와 같은 사고 능력은 챗GPT의 자동화된 응답에 과도하게 기대할 경우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챗GPT가 제공하는 정보는 항상 정확하거나 윤리적으로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비판적 검토 없이 이를 수용하는 경우 잘못된 정보의 내면화나 표절 등의 학문적 부정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결과물 중심’ 대학 과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챗GPT 시대의 과제는 학생이 어떤 과정을 통해 결과물을 도출했는지를 평가하는 ‘과정 중심 설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교수자는 과제 수행 전 AI 활용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학습자가 AI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사고방식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간 초안 제출, 교수자-대학생 간 과제 첨삭 활동, 최종 제출이라는 다단계 구조를 도입함으로써, 교수자가 AI가 아닌 학습자의 실제 기여도와 사고 흔적을 파악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챗GPT의 활용 여부를 아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였는지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과정 중심 평가 방식을 적극적으로 체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서 나열한 해결책들만으로 챗GPT에 관한 사용문제가 완전히 단절될 수는 없을 것이다. 오늘날은 교육계에서조차 생성형 AI 없이는 각종 활동에 차질이 생길 만큼 큰 중요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또 다른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해결책들을 교수자와 대학생 간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 교육 현장에 실제 도입한다면, 앞에서 설명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시대의 대학 과제는 단순한 정보 암기나 결과 제출을 넘어서, 비판적 사고, 메타인지, 윤리적 판단, 자기주도적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교수자와 학습자는 모두 AI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이 아니라, 이를 통제하고 분석적으로 활용하는 능동적인 주체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챗GPT는 교육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사용 방식과 과제 구조가 적절히 설계될 경우 오히려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교수와 대학생 모두가 알아야 한다. 결국 이는 단순한 기술 수용을 넘어, 교육 철학과 평가 패러다임의 재구성을 요구하는 우리 모두의 근본적인 과제라 여긴다.

참고문헌

강정구, 표시연(2024). 「ChatGPT를 활용한 성찰적 글쓰기 수업에서 대학생의 쓰기 효능감 고찰」, 『실천공학교육논문지』 vol.16, 한국실천공학교육학회, 471~479쪽.

권정민, 이영선(2023). 「ChatGPT시대 인공지능교육정책의 문제점 고찰」, 『인공지능인문학연구』 vol.13, 중앙대학교 인공지능인문학연구소, 9~38쪽.

권정현(2020). 「대학 글쓰기 교과를 위한 온라인 첨삭 프로그램 운영 요건과 개선 방안-한성대학교 온라인 첨삭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고와표현』 vol.13, 한국사고와표현학회, 33~64쪽.

김성하(2025.04.21.), 「‘찰각’하고 복불하면 A+...대학생 챗GPT 사용 이젠 ‘일상’」, <<여성경제신문>>, <https://www.woman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380> (최종 검색일:2025.06.14.).

김소현(2025.04.10.), 「美대학,교육에 생성형 AI 접목...”챗GPT 긍정적 측면 활용」, <<한국대학신문>>,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77491> (최종 검색일:2025.06.13.).

류재민(2024.01.19.), 「뉴욕은 학교 ‘AI 금지령’ 내리는데...美에리조나大 ”챗GPT 전면 활용“」,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4/01/19/OELW4NRPRRDYPAKCWL4YEOHQ5Q/ (최종 검색일:2025.06.14.).

송유진(2025.05.23.), 「[AI 교육 해외 동향] 챗GPT와 공부하는 아이들, 달라지는 학습 풍경」, <<edumorning>>, <https://edumorning.com/articles/587> (최종 검색일:2025.06.14.).

이금란(2024.11.18.), 「[이금란 칼럼] 교수자들이 놓치고 있는 수업설계⑤ 평가」, <<교육플러스>>,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14> (최종 검색일:2025.06.14.).

이명숙(2023). 「ChatGPT에 관한 대학생 이용자의 이용인식 및 경험에 관한 연구」, 『동아인문학』 vol.65, 동아인문학회, 1~26쪽.

이서희(2024.01.19.), 「“챗GPT 허용” 미국 대학 등장...교육계, ‘AI금지’대신 ‘공존’ 가나»,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1909580001085> (최종 검색일:2025.06.14.)

이윤빈(2023). 「대학생 필자의 글쓰기 과정에서 챗GPT에 대한 질문 양상 연구-쓰기 수준별 필자 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vol.17, 한국교양교육학회, 35~52쪽.

이윤빈(2024). 「대학생 필자의 글쓰기에서 챗GPT 답변의 활용 유형 및 양상 연구」, 『교양교육연구』 vol.18, 한국교양교육학회, 59~79쪽.

이한샘, 유지원(2024). 「대학생의 생성형 AI의 교육적 사용경험 및 인식 탐색: A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4, 한국콘텐츠학회, 428~437쪽.

전신영, 조명희(2024). 「생성형 AI 활용 수업의 교육적 효과와 과제:교수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혁신연구』 vol.34,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357~385쪽.

정제영(2023.04.20.), 「[ET시론]챗GPT와 관련된 교육의 이슈들을 해결하자」,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20230420000183> (최종검색일:2025.06.14.).

홍수민, 한형종(2023). 「ChatGPT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초등교사 인식 및 교육 요구도 분석」,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vol.26, 한국컴퓨터교육학회, 51~63쪽.